



정책 하이라이트

1. 국제 유가 변동 원인의 다양화

● 개요

- 지난 4년 간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최근 이러한 변동성 확대 원인이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과거 국제 유가 변동의 원인으로 공급 요인이 부각되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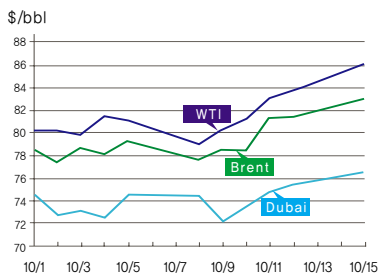
● 세부내용

- 지난 4년 간 국제 유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지정학적 문제와 허리케인에 따른 원유 공급차질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04년에는 국제 석유 수요 급증이 유가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중동 문제, 나이지리아 반군 테러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과 허리케인으로 인한 석유시설 피해가 유가 급등 원인이었음.
- '07년에는 공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투기적 수요가 국제 유가 변동의 또 다른 원인으로 등장하였음.
-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용

- 📌 정책 하이라이트 / 1
- 📌 해외에너지 정책/시장 동향 / 12
- 📌 국내외 정책연구 / 24
- 📌 연구원 동정 / 31

국제유가추이



평균가격(2007. 10. 1 ~ 10. 15)

WTI	Brent	Dubai
81.52	79.36	74.06

세계 석유 소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4/4분기에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편, IEA의 석유 수요 전망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과대 추정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인당 석유 소비는 고유가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 하고 있음.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WTI 가격은 7월 31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투기적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7월 31일 WTI 가격은 사상 최고치 달성하였으나 원유재고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하락세로 반전됨.

- 세계 금융시장 발전과 확대로 투기적 수요가 국제 유가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수 있음.

● 시사점

- 지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WTI 선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7번 경신하며 배럴당 \$83을 돌파하였음.
- 이러한 유가 상승 원인에는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허리케인 우려와 같은 공급요인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완화, 세계 증시회복, 미국 금리 인하 및 달러화 약세와 같은 금융시장의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국제 유가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단순히 실물 부문에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발전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nergy Economist, 2007.9)

2. 러시아-카자흐,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로 논의

● 개요

- 10월 4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두 정상은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회담을 갖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가스 및 석유 수출을 위한 러시아 통과 신규 수출로에 대해 논의함.

● 세부내용

- 두 정상 간의 논의는 지난 5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간에 합의되었던 신규 가스 수출로에 관한 후속 논의였음.
 - 카자흐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 연안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 공사가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 및 운송로' 프로젝트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카자흐 대통령은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 및 운송로' 프로젝트의 1단계 목표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여 남으로는 페르시아만에 연결하고 북으로는 발틱해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이 프로젝트를 위해 철도와 고속도로, 전력망, 가스 및 석유 수송관을 망라하는 최첨단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남북 방향으로의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 및 운송로' 프로젝트는 북쪽으로 EU에 가스 및 석유를 수출할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이란을 거쳐 페르시아 만으로 연결되어 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에도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밖에 카스피해를 흑해와 아조프해로 연결하는 새로운 운하 건설의 가능성이 제안되었으며 카스피해의 분할문제 또한 상의되었음.
 - 카스피해 분할 문제는 이번 달 이란에서 개최예정인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임.
 - ※ 카스피해 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이 공동보조를 취해 해안선에 따른 분할을 주장해왔으나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은 5등분하기를 주장해 왔음.

● 시사점

-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 및 운송로'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의 가스 및 석유를 유럽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페르시아 만으로의 수송관이 완성될 경우 아시아로의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아시아 매장지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카스피해 에너지 수송 및 운송로' 프로젝트는 에너지 수송 외에도 주요 교통 인프라에 대

한 계획도 담고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RFE/RL, 2007.10.5)

3. 중국의 가스관 확장 계획

● 개요

- 중국 국영석유회사 CNPC는 중앙아시아와 국내 가스전을 연결하는 첫 단계로 제 2 서기동수(West-East Pipeline, WEP-2)의 세부계획을 마침.

● 세부내용

- 중국의 가스관 확장 배경
 - 8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후 WEP-2의 계획이 발표됨.
 - WEP-2의 빠른 진행은 중국의 가스 공급 부족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중국의 주요 가스관 루트



- 현재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현재 600억 m³/yr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수요량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 '10년 수요량은 1,000억 m³/yr로 약 200억 m³/yr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 중앙아시아 연결 가스관 계획
 - 중앙아시아를 지나는 두개의 신규 파이프라인은 카자흐스탄 Chimkent에 서로 만나며 Khorgos 지역을 통과하여 중국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임.
 - 건설 첫 단계는 투르크메니스탄 또는 우즈베키스탄(잠정) 가스 수송을 위해 두 국가에서 Khorgos를 연결하는 300억 m³/yr 파이프라인 건설임.
 - 두 번째 단계는 Beyneu-Bozoi-Kyzylorda를 연결하고 Chimkent에 이르는 가스관 건설과 Chimkent-Khorgos 라인을 400억 m³/yr으로 확장하는 것임.
 - ※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7월 베이징 방문 중에 중국과 300억 m³/yr의 30년 장기가스 공급 계약에 서명하였음. 또한 SCO 정상회담 후에 카자흐스탄과 가스관 루트 협정을 체결함.
- 제2 서기동수 가스관(WEP-2) 계획
 - WEP-2는 Khorgos 지역에서 기존 파이프라인 루트를 따라 중부 Gansu성을 연결하여 남동 Jiangxi성의 Nachang으로 향하며 Jiangxi에서 갈라져 Shanghai와 Guangzhou를 연결함.
 - 총 길이 4,900km, 용량 300억 m³/yr으로 '10년 가동될 예정이며, 비용은 \$106~133억이 소요될 전망으로 '02년 완공된 WEP-1의 두 배 규모임.

● 시사점

- 중국은 러시아와 천연가스 구매계약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의견불일치로 차질을 겪은바 있으며, 최근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천연가스 확보에 지장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천연가스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Argus Asia Gas & Power 2007.9)

4. 중국의 호주 LNG 확보 움직임

● 개요

- 중국은 현재 높은 LNG 가격에도 불구하고 호주 Gorgon 및 Browse 프로젝트의 LNG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세부내용

- Gorgon 및 Browse 프로젝트
 - 중국 PetroChina는 호주의 Gorgon 및 Browse LNG 프로젝트의 물량확보에 열중하고 있음.
 - 동 기업은 Jiangsu성에 연간 3백만톤과 Liaoning성에 같은 규모의 두개의 수입 터미널 건설계획을 갖고 있음.

중국 LNG 터미널 계획



- Shell은 연간 1,000만톤인 Gorgon 프로젝트의 지분 25%를 소유하고 있으며 PetroChina에 20년간 연간 1백만톤을 판매할 계획임.
- 두 기업은 내년 말 이전까지 세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호주 Woodside는 '13 또는 '15년부터 연간 7백만~14백만톤의 Browse 프로젝트를 통해 15~20년간 연간 2백만~3백만톤을 공급할 예정임.
- Gorgon과 Browse 프로젝트는 아직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므로 계약 진행상황에는 여전히 변수가 존재함.
- 그러나 PetroChina와 같은 거대기업이 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호주 LNG 프로젝트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두 프로젝트 실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LNG 가격요소

- CNOOC는 '06년 Woodside의 NWS 프로젝트로부터 LNG 인수를 시작하였으며, 25년간 연간 3.3백만톤으로 가격조건은 배럴당 \$25를 기준, LNG 가격 \$2.70/MMBtu임.
- 이러한 낮은 계약 가격의 선례는 신규 LNG 계약에 지장이 되고 있으며, 대만이 올해 7월 평균 \$10/MMBtu로 스팟 가격을 지불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낮은 가격이 LNG 시장에서 반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음.
- CNOOC는 뒤이은 계약에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인정하고 BP가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Tangguh 프로젝트로부터 Fujian 터미널로 공급하는 LNG 가격을 \$3.80/MMBtu로 인상하는 것을 승인하였음.
- 또한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 Petronas와 LNG 가격을 \$5-6/MMBtu 범위대로 계약함.
- PetroChina는 호주와 LNG 계약을 위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동보다 안정적인 공급원이기 때문임.
- Sinopec은 '04년부터 이란 정부와 25년간 연간 1천만톤의 LNG 구매계약을 위해 협상을 진행중이나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와 신뢰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런 와중에 중국은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가스공급과 두 번째 서기동수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증대하는 가스공급 안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임.

• 호주 신규 프로젝트 계획

- Woodside는 NWS 프로젝트를 6개 트레인으로 확장하고 Pluto와 Sunrise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며, '15년까지 LNG 생산량은 연간 5천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 Gorgon 프로젝트는 일본 전력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rowse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임.
- Woodside는 7월 Pluto 프로젝트의 추가 투자안 \$95억에 대해 최종 승인하였으며, '10년까지 연간 4.8백만톤을 생산할 예정임.
- 프로젝트 제약 요소
 - Browse와 Gorgon 프로젝트는 비용 상승과 경제성을 위협하는 환경제약에 처해있음.
 - 서호주 정부는 Gorgon LNG 플랜트가 위치할 Barrow섬에 대해 부정적 환경영향 평가를 내린 바 있으며 이러한 환경 평가는 Browse에서도 반복되었음.
 - Woodside가 선호하는 대안은 Scott Reef에 해상 LNG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이며 Browse 가스전에서 Burrup반도에 위치하는 LNG 플랜트를 연결하는 가스관은 900km에 이를 전망이다.
 - 이는 고비용이지만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의 호주 LNG 확보 움직임으로 아시아 지역의 LNG 수입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 LNG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호주 및 중동지역의 신규 LNG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며 LNG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요구됨.

(Argus Asia Gas & Power, 2007.9)

5. 일본 전기사업분과회, 전력도매시장에 관한 토의

●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METI)산하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7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의 지연을 결정하였는데, 이번에 전력도매시장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혁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음.

● 세부내용

- 전기사업분과회는 지난 6월 자유화가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매시장 자유화범위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음.
 - 전력시장 경쟁환경 및 수요자의 선택폭에 관한 논의와 송배전부문의 투명성 확보, 탁송 요금규제, 전력거래소 활성화 등의 주요과제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됨.
 - 자유화범위확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전기사업자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사전에 취해져야 함이 지적됨.
- 이번에 실무그룹은 2005년에 설립된 일본전력거래소(JEPX) 활성화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거래소활성화에서는 계획책정 후의 수급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현물을 일정한 시간에 거래하는 시간전시장의 창설을 검토하기로 함.
 - 거래시간에 대해서는 향후 토의하여 조정하기로 하고 거래소거래의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임밸런스 제도의 재검토가 제기됨.
 - 공급구역 및 시간대별로 스팟판매 약정총량을 3%내외로 하고 거래소가 요금을 정산하는 것을 검토함.
 - 임밸런스 지불액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는 구매자 간의 대표계약자 제도의 활용을 위한 밸런싱 그룹을 만드는 등의 시스템 개선방안이 있음.
 - 거래량 증가에 따른 새로운 목표설정과 수단을 검토하고 거래소의 감독 강화도 과제로 삼고 있음.
- 27일의 회합에서는 전력도매거래소도 현재 진행 중인 과제와 향후의 대응책을 보고했음.
 - 선물시장에 관해서는 탁송신청절차의 대행, 정산 중개를 통한 거래자의 업무부하를 줄이고 단순종량제의 수수료제도도 거래량에 따른 가격할인 인센티브 부여와 건수제, 정액제를 축으로 재검토할 방침을 시사함.

- 실무그룹은 11월 15일 분과회와의 합동회합에서 동시동량 및 임밸런스와 탁송요금제도, 안정공급 및 환경적합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할 예정임.
 - 향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12월 14일의 분과회에서 보고한 후 1월 말에 분과회의 기본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 시사점

- 일본 정부는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소매자유화 범위와 시기를 신중하게 추진하는 한편, 전력도매거래 제도개선과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

(日本電氣新聞, 2007.9.28)

6.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부문 개방 가속화

● 개요

- 투르크멘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및 영국 정부 요인들과의 회담에서 에너지부문 개방 의지를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회사들은 투르크멘 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세부내용

- 9월 19일, 오스트리아 경제노동부 장관은 투르크멘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후, 투르크멘 정부가 카스피해 연안의 매장지 개발에 참여할 외국인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 현재 투르크멘 정부는 다양한 에너지수송관의 건설에 깊은 관심(카스피해 남부방향 포함)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으로의 가스수출 및 국경에서의 가스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함.
- 9월 20일, 투르크멘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영국 에너지부 장관도 투르크멘 대통령이 카스피해 연안의 매장지 개발 프로젝트에 영국 회사들의 참여를 희망했다고 밝힘.
 - 투르크멘 대통령은 현재 투르크멘에 여러 개발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양국간의

상호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열망과 의지 역시 충만하다고 강조함.

-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영국과 투르크멘 간의 가장 중요한 협력의제로 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터키-EU로 연결되는 가스수송관의 건설을 언급함.
- 한편 영국과 투르크멘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자간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영국 에너지부 장관은 투르크멘과의 협력회사로 BP를 언급함.
- 9월 25일, 62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투르크멘 대통령은 Chevron의 부회장과 만나 상호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Chevron은 이번 만남 후, 투르크멘 수도인 아쉬하바드에 곧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며 투르크멘의 카스피해 연안 매장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미국 석유회사인 ConocoPhillips는 최근 Lukoil과 함께 투르크멘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에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시사점

- 투르크멘 정부의 에너지 개발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러시아 의존에서 탈피해 오스트리아, 영국 등 서구 국가들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ConocoPhillips, Chevron 등 주요 에너지회사들의 투르크멘 진출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임.
- 투르크멘은 중앙아시아 주요 에너지보유국이나 정치적 이유로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잠재력이 있는 매장지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럽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자원개발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Interfax, 2007.9.25)

해외에너지 정책/시장 동향



일본의 도시가스 사업 동향

- 지난 4월 가스사업 자유화 범위가 연간 가스사용량 10만^m 이상인 수요자로 확대된 결과로 수요자 10,100건, 가스판매량의 59%가 자유화 대상이 됨.
 - 신규참가건수는 '01년도의 20건에서 '06년도에는 162건으로 증가하였고 대규모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8%에서 11.7%로 확대됨.
 - 향후 도시가스 사업의 과제는 공급안정과 안보문제이며, 소매자유화 범위의 확대에 관해서는 전력부문의 소매자유화 연기가 결정됨으로써 가스부문에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LNG 수요는 도쿄전력의 카리와 원자력발전소의 복구시점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석유계통 연료와 LNG로 원자력의 부족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02년 8월에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정지되었으므로 도쿄전력의 LNG 소비량은 '01년도 1,593만 톤에서, '02년도 1,696만 톤, '03년도 1,912만 톤으로 증가하였음.
 - 이번에도 당분간 LNG 장기계약으로부터 추가물량 조달을 통해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한편, 원자력 발전소 정지기간의 장기화로 스팟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02년에는 도쿄전력의 원자력 1,730만 kW 전부가 정지하였지만, 카리와 원전의 가동정지 용량은 821만 kW에 불과하고 '06년에 호주의 다윈 프로젝트 200만 톤이 추가되어 LNG 장기계약물량이 1,760만 톤으로 확대되는 등 상황변화가 발생함.

(IEEJ, 2007.9)



유가급등이 세계 정치 · 경제 불안 원인으로 작용

- IHT는 배럴당 \$80을 돌파하는 등 치솟는 석유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 및 경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이 신문은 미얀마 민주화 시위가 지난 8월 군사정부의 전격적인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산유국인 이란, 나이지리아 등에서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때문에 시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아프리카의 대표적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에서도 석유시설 근로자들이 지난 6월 배급제를 축소할 경우 석유 생산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며 파업에 나서 정부는 결국 배급 축소를 철회하였음.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유가 결정을 시장에 맡기느냐,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해 유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느냐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였음.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7.10.1)



달러 약세로 OPEC 증산 주저

- 달러 약세가 OPEC으로 하여금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증산을 꺼려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석유시장 관계자들이 지적하였음.
- 이들은 OPEC이 11월 1일부터 일일 50만 배럴 증산기로 합의한데 이어 오는 12월 5일 수급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 위한 정례 각료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주요 석유결제 통화인 달러가 유로화에 비해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증산 결정이 내려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이라크의 석유장관도 최근 달러 가치가 지난 몇 달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OPEC 회원국 다수의 석유 판매수입에 실질적인 타격이 가해졌다고 언급함.

(AP, 2007.10.1)



중국, '10년 석유비축량 현재의 4배로

- 중국은 석유수요의 급증으로 수입비율이 약 50%인 상황이며 에너지부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석유비축량을 늘릴 계획임.
 - 작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비축용 탱크에 석유 저장을 시작할 것이며, '10년 석유비축량은 1,200만 톤으로 현 수준의 4배정도가 될 것임.
- 중국 절강성과 산둥성, 요녕성 등에서 비축기지 건설 및 정비가 진행 중이며, 이미 2개소가 가동되고 있음.
 - 현재 200~300만 톤의 비축량이 '10년에 1,200만 톤에 이르면 중국의 1개월분 수입량에 상당하는 석유저장이 가능하게 됨.

(日本經濟新聞, 2007.10.5)



베네수엘라, 포르투갈과 석유개발 프로젝트 협정 체결

- 베네수엘라와 포르투갈 양국은 오리노코 유전의 Boyaca 6블록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함.
 - 석유와 가스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 프로젝트는 베네수엘라의 PDVSA와 포르투갈의 Galp Energy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베네수엘라는 포르투갈 총 수요량의 30%를 충족할 수 있는 약 96,000 b/d를 30년간 수출할 계획임.
- Boyaca 6블록에는 5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 중 120억 배럴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양국은 LNG 공동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베네수엘라는 포르투갈의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유럽시장 진출 확대를 꾀함.

(Europa Press, 2007.10.3)



가스프롬,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 경고

- 가스프롬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9개월간의 \$13억 채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올해 초에도 가스프롬은 급작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기 위해 유럽으로 수송되는 가스를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은 가스 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음.
 - 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어 EU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자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EU의 비판에 대해 가스프롬은 독립국가에 시장가격의 1/5인 할인가격에 가스를 공급하는 지속적인 보조를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워왔음.
 - ※ 올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간 가스분쟁에서 가스프롬은 1,000 m³당 \$230을 요구해왔으나, 우크라이나는 \$130을 지불해왔음.
- 한편 현 상황에 대해 가스프롬이 서유럽 수송 파이프라인을 안전하게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분석이 제기됨.

(Timesonline, 2007.10.3)



IEA, 폴란드 가입 승인

- IEA는 폴란드의 IEA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였음.

- IEA 가입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 및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폴란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폴란드는 '94년부터 IEA 가입을 희망해왔음.
- 이번 승인은 폴란드의 지리적 위치가 중·동부 유럽에서 IEA의 입지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결정된 것임.
 - ※ 중유럽 최대의 에너지 소비 및 생산국인 폴란드는 '96년, '04년에 각각 OECD와 EU에 가입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 석탄 생산 3위를 기록함.
- '90년대 이후 폴란드는 에너지 부문 개혁 및 에너지 소비패턴 개선을 시도해왔음.
 - IEA 및 EU의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공급원 다변화 및 교역 강화와 에너지안보, 시장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IEA, 2007.10.3)



프랑스 에너지규제위원회, GDF의 망관리 규제 추진

- 프랑스의 에너지규제위원회(CRE)는 전력 및 가스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인 분쟁해결및제재위원회(Cordis)가 GDF의 독점적인 망관리를 제재하도록 명령함.
 - GDF가 관리하고 있는 가스 배관망의 길이는 185,000km이며, '08년부터 동 배관망은 관리와 소유가 분리되어야 함.
 - 지난 7월 1일에 실시된 에너지시장개방으로 GDF는 타 경쟁업체와 배관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CRE에 따르면 배관망에 대한 평가 및 고객리스트는 배관망 이용에 필요한 정보이며, 전력 및 가스회사인 Poweo는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7월 26일에 망정보이용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함.
- 이번 Cordis 개입은 '06년 12월 7일 에너지관련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이후 세 번째임.

(LesEchos, 2007.10.3)



프랑스 Alstom Hydro, 베트남에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 Alstom Hydro는 베트남 하노이(Hanoi)의 북서쪽에 위치한 Son La 수력발전소에 필요한 설비들을 베트남전력공사(EVN)에 1억 9,000만 유로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함.
 - 동 발전소의 예상 발전규모는 2,400MW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계약은 양국의 수상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짐.
 - Alstom Hydro는 Alstom과 Bouygues의 합작회사로 총 설치규모는 400GW를 초과하는데, 이는 세계 수력의 25% 이상을 차지함.
- Alstom Hydro는 동 수력발전소의 구상 및 종합연구, 제조 뿐 아니라 각각 400MW급의 Francis 터빈 6기와 교류발전기, 부속설비를 양도할 예정임.
 - 동 발전소의 시험가동은 '10~'12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약 100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베트남의 전력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uropétrole, 2007.10.4)



오스트리아 OMV, 헝가리 MOL 인수 추진

- 오스트리아 석유회사 OMV는 지난 9월 25일, 헝가리 석유가스기업 MOL의 지분을 주당 128 유로로 총 14억 유로에 매입하여 지분 20.2%를 확보하였으며, MOL 인수를 통해 동유럽 최대 규모의 기업 창설을 추진 중임.
 - 헝가리 정부 및 MOL은 OMV의 이러한 인수 계획을 반대하고 있으며, 헝가리 수상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오스트리아의 적대적 인수를 막겠다고 밝힘.
 - 한편, OMV의 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이번 인수합병 계획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헝가리 정부는 예측함.
- 이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인수계획은 유럽의 가스안보와 관련이 있는데, OMV와 MOL은 각자 유럽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을 희망하고 있음.

- 두 기업 모두 Nabucco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유럽시장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 OMV의 MOL 주식매입 문제는 Nabucco 프로젝트 실행에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Le Monde, 2007.10.1)



타이완, 사우디 전력발전소 건설참여 희망

-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소와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위한 입찰에 타이완 컨소시엄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석유를 이용한 850~1,100MW 발전소 건설과 일일 12억 리터 담수화 플랜트 건설을 포함하고 있음.
-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일본의 도시바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 '15년까지 전력생산을 60% 증가시키기 위하여 사우디전력공사는 지난 6월 \$510억 상당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음.
- 사우디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우디는 경제성장의 원천인 석유판매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연평균 7%의 전력수요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도 리야드에서는 지난 2년간 10%의 전력수요 성장을 나타내었음.

(Al-Jazeera, 2007.10.2)



미국,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국 회의 개최

-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 회의가 9월 27~28일 워싱턴에서 개최됨.
- G8 및 중국, 인도 등 총 16개국과 EU, UN 등이 참가하였으며, '13년 이후 교토의정서 후

속체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27일에는 감축기술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태 등을 협의하고, 28일에는 부시 대통령의 연설과 장기 목표 설정에 관해서 협의함.

●미국은 전 세계의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실행방법에 관해서 '08년 말까지 합의하고 UN 체제하에서의 차기 제도 설립의 교섭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장관들과 실무자들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포스트-교토 체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UN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朝日新聞, 2007.9.28)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계약파기 법안 가결

●카자흐스탄 하원은 9월 26일에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가결함.

- 법안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국내외 기업과의 계약을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원의 승인을 거치면 정부에 의해 시행될 것으로 보임.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샤간 유전 개발을 주도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환경오염을 이유로 계약 재검토를 요구해왔으며 이번 법안 가결로 외국기업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카샤간 유전은 생산물분배협정(PSA)에 의해 외자 주도로 개발해왔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근 3개월 공사정지처분을 내린 후에 개발면허 박탈을 시사하며 국영석유회사의 지분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日本經濟新聞, 2007.9.27)



EDF, 베트남 발전소 건설에 투자예정

- 베트남은 연평균 9%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연간 20%씩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현재의 설비용량을 '10년까지 두 배로 증가시켜 약 28,000MW로 확대할 계획임.
- 최근 정부는 Hau Giang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는데, 동 발전소의 규모는 3,600MW이며 EDF는 이에 28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임.
 - 동 발전소는 첫 번째 석탄화력발전소이며, EDF는 동 프로젝트 외에 남부 유전지역의 Phu My 단지에 700MW급의 가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 J-Power는 Ba Ria-Vung Tau 화력발전소에 \$24억을 투자할 예정이고, 아시아개발은행은 북부지역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에 약 \$10억의 차관을 결정함.

(Reuters, 2007.9.25)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3국 정상회담 개최

-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3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정치 및 사회,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함.
 - Pernambuco 정제시설 : 3국 모두 동 정제시설 건설을 '20년까지 연장하지 않고 '10년에 가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함.
 - 정제시설 : PDVSA와 Petrobras는 2개의 정제시설을 공동건설하기로 하였으며 지분보유율은 베네수엘라에 건설되는 정제시설은 PDVSA가 60%, Petrobras가 40%를 보유하며, 브라질에 건설될 정제시설은 그 반대임.
 - 중남미 가스관 : 베네수엘라 북부 Sucre 주를 시작으로 Orinoco를 거쳐 Pernambuco로 연결될 동 가스관은 현재 에너지 부족사태에 처한 역내 국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임.



- 베네수엘라의 중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 : 베네수엘라는 Mercosur 가입의사를 밝히며 브라질의 지지를 호소하였음.
- 브라질과 중남미은행 : 차베스 대통령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에콰도르의 가입을 희망하며 또한 브라질이 창설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07년 내에 창설이 결정될 것이라고 함.
- 베네수엘라 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에콰도르산 원유 정제 및 에콰도르의 에너지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또한 에콰도르 Manabi 지역에 양국이 공동으로 정제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함.

(Reuters, 2007.9.24)



EU, 폴란드 에너지시장 규제 완화 요구

- EU는 폴란드 국내에서의 장기 계약을 통한 전력판매는 신규 전력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고 경쟁을 저해하므로, 이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장기 계약을 통해 거래되는 전력량은 폴란드 발전량의 절반 이상으로, EU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폴란드 에너지시장 자유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 법은 '90년대 폴란드가 EU에 가입('04)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폴란드의 에너지망 사업자인 Polskie Sieci Energetyczne(PSE)가 에너지 공급자들과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임.
 - '90년대 중반 폴란드 에너지 부문의 해결 과제는 에너지공급원 확보와, 발전부문 인프라의 현대화였음.
 - 정부는 발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PSE간에 전력수급계약(PPA)을 맺고, PSE로 하여금 총발전량의 일정부분을 구입하도록 함.
 - PPA는 '94년, '98년 두 번에 걸쳐 체결되었으며, 이는 각각 '05년, '27년에 종료될 예정임.
- EU 회원국내 정부보조의 합법성에 대해 조사 및 평가하는 것은 EU의 고유 업무로, EU는 폴

란드 전력시장의 PPA를 '08년 1월까지 종료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적어도 '08년 4월까지
는 무효화되어야 함.

(DPA, 2007.9.27)



스페인 '08년 에너지 예산안

- 스페인정부는 효율적 에너지사용이라는 목표 하에 “Plan de Carbon '06~'12년”에 '08년 9억 7,160만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08년 에너지정책은 경쟁 강화와 가격하락, 공급 안정화, 서비스질의 향상, 환경보호 등을 목표로 함.
 - 정부는 전력부문에 있어 청정 에너지기술을 사용하며 고효율 발전소의 건설에 정부보조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정부가 직접 유럽 에너지시장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함.
 - 이밖에도 에너지공급 안정화를 위해 현 석탄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및 절약캠페인 부문에 포함된 '05~'10년 신재생에너지 사용 프로젝트“와 '04~'12년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프로젝트“에 7,628만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함.
 - 동 프로젝트는 신재생 에너지원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 강화,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것임.

(EFE, 2009.9.25)



국영석유회사 카타르, 전력발전소 건설자금지원

- 국영석유회사 카타르는 북동부 해변 라스라판의 가장 큰 전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총 \$25억의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카타르는 발전소건설을 담당하는 카타르 수전력공사에 내년 3월 말에 자금지원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힘.

- 동 발전소는 2,600MW의 전력과 일일 5,500만 갤런의 물을 생산할 수 있음.
- 수전력공사는 영국의 International Power와 일본의 Marubeni, 프랑스의 수에즈가 발전소 건설과 발전소 소유권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밝힘.
 - 낙찰된 회사가 동 프로젝트의 40%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카타르 석유공사와 수전력 공사에 배분될 것임.
- 카타르는 인구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늘어난 수요부응을 위하여 전력생산을 작년 3,500MW에서 3배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Al-Jazeera, 2007.9.25)



미국, 예멘에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 체결

- 미국의 Powered Corporation은 예멘에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30억 상당의 첫 원자력 발전소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 예멘 정부는 미국과 함께 10년간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5,000MW 전력과 담수화 작업을 위해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방침임.
- 예멘 전력 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동 사업은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인 면을 검토하면서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질 지역 선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동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현재 예멘의 전력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 될 것임.
- 예멘은 지난 7년간 원자력안보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으며 국제 원자력 기구는 전력생산을 위한 예멘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동의하였음.
- 예멘의 현재 설비용량은 1,000MW에 불과하며 전력공급의 부족을 겪고 있음.

(www.aleqt.com, 2007.9.26)



주간 국제유가 동향

- 10월 첫째 주(10/1~10/5),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증가와 달러화 회복조짐이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석유제품 재고 감소와 하반기 경제 전망이 어려짐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함.
 - 3일 발표된 EIA 미국 주간석유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재고는 전주대비 120만 배럴 증가하였으나 휘발유와 중간유분 재고는 전주대비 각각 10만 배럴과 120만 배럴 감소함.
 - 미국 원유재고는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제가동률 부진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한편, 미국 정제가동률 부진 지속으로 석유제품 재고는 전주대비 감소하며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유 공급 우려를 가중 시킴.
 - 달러화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보임.
- ※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9월 미국 고용자수는 전월대비 11만명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 통계치도 상향조정됨. 하지만 하반기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석유소비 증가 여부도 미지수라는 분석이 이어짐.
- 10월 첫째 주 Nymex 원유선물 가격은 달러화 가치가 소폭 상승하고 미국 원유재고 증가 소식으로 주초 하락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 가격과의 Spread를 좁히기 위한 매수와 신용경색 위기 완화에 따른 펀드 재유입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냄.
 - WTI 원유재고 감소 소식으로 NYMEX-WTI 선물유가는 ICE-Brent 선물유가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을 유지함.
-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0월 5일 발표한 10월 2일 기준 Nymex의 대형 투기자금에 의한 원유(WTI) 선물 순매수 규모는 전주대비 29.6% 증가한 56.47백만 배럴을 기록함.
 - Nymex-WTI 10월 2일 최근월물 가격은 \$80.05로 전주대비 0.7% 상승함.

(주간 국제유가 및 시장 동향, 139호)

국내외 정책연구

1.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변화

● 개요

- 최근 가스프롬, Rosneft, Lukoil과 같은 러시아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해 왔으며,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국영기업 혹은 복합적 사업이 혼재된 기업구조로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이윤이 높은 기업구조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세부내용

- 러시아의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최근 미국과 유럽 및 인근 국가들에 대한 활발한 기업인수 활동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며 향후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대외확장정책은 러시아 기업에게 선진기술이나 경영기법,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함.
 - '06년 중 국제시장에서 가스프롬을 포함한 러시아 기업들의 인수합병 활동은 \$150억 (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러시아 주요 기업 현황

기업	부문	종원원 수	2006 수입
Lukoil	석유, 가스	148,500	67,684
Gazprom	석유, 가스	432,000	64,100
Rosneft	에너지	70,000	33,099
Severstal	Metals and Mining	100,000	12,423
Norlisk Nickel	Metals and Mining	96,193	11,550
Evrast Group	Metals and Mining	110,000	8,292
MTS	통신	24,125	6,384
UC Rusal	Metals and Mining	100,000	6,650
Vimpelcom	통신	21,300	4,870

- 구소련지역 국가와 기타 신흥개발국가에서의 사업 확장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경험부족, 정치적 고려나 기업이미지 문제로 선진국시장 진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음.
 - '06.1~'07.1 기간 중 러시아기업들은 13개의 대형 인수합병에 실패하였으며 동 사업 투자소요액의 총 합계는 \$502억이고 이 중 5건이 가스프롬, 2건이 Lukoil이었음.
- 선진국 시장에서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몇 주요 서방기업들과의 협력적 사업방식의 채택은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신뢰성 있는 사업협력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가스프롬은 '07년 초 TNK-BP 합작사업 지분을 BP로부터 인수하였으나, 비슷한 시점에 가스프롬과 BP가 장기적인 연대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 및 외국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해 공동투자를 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미국의 ConocoPhillips는 '04년 Lukoil의 지분 7.6%를 취득하고 이후 이를 20%까지 증대하여 러시아의 주요 유·가스전에 대한 개발권을 얻게 되었으며, Lukoil은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뿐 아니라 대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함.
- 러시아 거대기업들은 점진적으로 내부 의사결정구조 및 과정의 개선, 지속가능발전 경영 원칙의 도입 등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음.
 - 이는 서방국가 자본시장에서 상장을 통해 금융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 활동 또한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임.
 - 러시아 기업들은 서구형 지배구조 및 고용정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톡옵션과 성과급 같은 인센티브제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제도, 내부감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의 경영·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그러나 S&P의 '06년 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기업들의 경영투명성은 IPO나 유로본드의 판매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러시아의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가스프롬과 같은 국영기업의 경우 그 변화속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함.
 - Lukoil을 포함한 러시아기업들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핵심 사업을 제외한 사업부문을 분리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가스프롬의 경우 언론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기업은 특히 서방세계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러시아의 Severstal사는 Arcelor사의 인수합병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공하는 노력을 한 인도의 철강회사 Mittal에 패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러시아기업 경영자들은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이 기업의 운영이나 지배구조, 재무 측면에서 세계 일류기업의 관행보다 우월하여야 유지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시사점

- 국제적으로 러시아 에너지기업들의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대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에게 주요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
- 따라서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산업에 대한 진입을 위해서는 러시아 에너지산업의 변화과정과 경제 및 제도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 방식에 의한 러시아자원 및 시장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2. 영국 Ofgem의 새로운 역할

● 개요

- 영국의 지속발전가능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SDC)는 9월 19일 “Lost in Transmission : The Role of Ofgem in a changing Climate”를 발간하여 Ofgem의 역할의 최우선순위는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있음을 강조함.

● 세부내용

- Ofgem(가스 · 전력시장 규제기관)의 역할

- 가스·전력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90년대에 설립된 Ofgem은 에너지시장에서의 경쟁 도입과 소비자 가격 인하 등을 주도해왔으며, '00년과 '04년에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음.
- Ofgem은 에너지시장과 네트워크, 소비자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력 및 가스의 송배전에 대한 규제를 통해 네트워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 Ofgem이 기후변화 의무와 '50년까지 탈탄소 전력시스템(decarbonised electricity system)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에너지 시스템의 장애요인
 - 온실가스 배출을 더욱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Ofgem이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네트워크에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함.
 - 소규모 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신규 진입자들은 현재의 에너지거래시스템 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를 송·배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용량의 부족으로 원거리 청정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
 - Ofgem은 에너지시장 구조조정과 전력손실의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05년 발전가격 조사 및 '07년 송전가격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으며 이에 대해 SDC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함.
- 소비자에 충실한 정보 및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효율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 현 에너지 시스템은 난방부문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어 난방부문 손실이 큰 편이므로, 난방부문의 규제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스수요관리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함.
- 권고사항
 - Ofgem의 효율적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SDC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고함.
- 에너지와 환경관련 정책은 하나의 부처에서 입안 및 수행

- 난방관련 규제제도 마련
- Ofgem의 주요 임무를 Ofgem의 목표와 정부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과 일치하도록 조정
- Ofgem이 부여받은 새로운 임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임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기술한 지침서 발간
- Ofgem의 사회 및 환경에 대한 기존 지침을 명확히 규정
- Ofgem의 규제 평가 보고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지와 Ofgem의 규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록할 것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SDC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고함.
- 온실가스 일괄 유인책으로 Price Control Review에 포함하며 Price Control Review를 확대하기 위해 배전 손실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분산전원을 장려하며 네트워크의 송전 능력을 향상
- 신규 발전설비를 송전망에 신속히 연결시키기 위해 ‘연결 후 관리’ 방식을 채택할 것
- 정부와 Ofgem은 열병합발전의 송전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열병합발전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
- Ofgem은 급전순위에 대한 검토가 소규모 사업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할 것
- Ofgem은 National Grid와 함께 발전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연결비용에 대해 용이하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 도구 개발할 것
- 지속가능한 발전은 산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Ofgem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산업에 대해 지원할 것
- 관련 법안의 수정 과정을 소규모 참가자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단순화할 것
 - 에너지 복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SDC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권고함.
- Ofgem은 Smart 계량기와 요금청구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즉각 시행할 것
- Ofgem은 사전 지불 계량기와 소비자들이 에너지 사용 패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양

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것

- Ofgem은 에너지 회사들에게 사전 지불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요금제를 제공하도록 요구 할 것
- Ofgem은 도매가격 인하를 통해 모든 소비자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시사점

-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경제 실현과 관련한 Ofgem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동보고서가 본보기로 삼고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는 저탄소경제실현을 위한 제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SDC, 2007.9)

연구원 동정

1. 주요 회의참석

- IEA의 장기협력상설그룹 및 이사회 참석(9/30-10/6, 프랑스 파리)
- OECD/IEA 기후변화 협약관련 전문가 회의(10/7-13, 프랑스 파리)
- 아·태기후변화 파트너십 2차 각료회의 및 정책이행위원회 참석(10/13-16, 인도 뉴델리)
- 제2차 한일(NEDO) 신·재생에너지 세미나 참석 및 주제발표(10/10-12, 일본 동경)
- 한-러 전력세미나 참석 및 주제발표(10/7-10, 러시아 모스크바)
- 국회기후변화포럼 발표 : 기후변화와 국가경제(10/11, 국회)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T/F 8차 회의(10/4, 연구원)
- 도시가스협회 세미나 발표 : 기후변화대응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전략-정유산업 사례(10/9, 대전)
- 수소경제 법·제도 정비방안 중간 발표회 및 3차자문회의(10/1, 에관공)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워크샵(10/5-6, 대구 인터불고호텔)

2. 언론 활동

- BBS 아침방송 생방송 인터뷰 : 'UN 고위급 기후변화회의의 의의' (10/2)
- 매일건설신문 인터뷰 : '바이오가스의 경제성' 관련(10/4)
- 로이터 통신 인터뷰 : '국제유가 동향에 관하여' (10/4)

회원제도안내

구분	제공자료(발행주기)	특기사항
국내 일반 회원 (연회비:50만원)	- Energy Insights (격주간) -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 에너지 포커스 (분기) -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 우편 발송 배포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 -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
해외 회원 (연회비:2천달러)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Northeast Asia Energy Focus (분기) - Korea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연간) - Energy Info. Korea (연간) - 기타 영문보고서 (부정기)	해외 우편 발송 배포
국내 포럼 회원 (연회비:1백만원)	- Energy Insights (격주간) - 에너지통계월보 (월간) - 에너지 포커스 (분기) - 에너지수요전망보고서 (분기) - 에너지경제연구 (반기) - 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정책연구보고서 (연간)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연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고서 (5년) - 세미나 자료 (부정기) - Korea Energy Review Monthly (KERM) (월간) - Northeast Asia Energy Focus (분기) - Energy Info. Korea (연간)	- 우편 발송 배포 - 에너지경제연구원 인터넷포럼 회원 전용 자료실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정보 제공 (회원전용 ID 및 Password 부여) -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주요 학술세미나 및 정책 토론회 초청 - 에너지 및 자원 분야 의문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 소개

●가입 문의 : 교육홍보팀 (031-420-2281)회원 제도 안내

